

“무등산에 필요한 건 탐방로 정비·교통편 확충”

국립공원연구원, 탐방객 320명 면접 만족도 조사

광주 거주 50대 남성 회사원 가장 많이 찾아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탐방로 및 미흡한 교통편 정비가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시에 위치한 점과 무등산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탐방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무등산국립공원의 빼어남을 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탐방객 만족도 극대화화도록=7일 국립공원연구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연구원은 최근 무등산국립공원 탐방객 설문 조사 등을 토대로 탐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탐방로 정비 ▲저렴한 여행비용 ▲다양한 특산물 ▲편리한 교

통수단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국립공원연구원은 이같은 요인들을 반영해 국립공원 무등산 알리기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무등산국립공원 탐방객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탐방로 개선 및 버스 노선 확충, 성수기 배차 시간 조절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3년 3~11월까지 탐방객 320명(20세 이상)을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반영해 작성됐다.

설문 참여자들은 무등산을 찾는 이유로 건강증진(47.8%·151명)을 첫 손에 꼽았

다. 이외 ▲휴양 및 휴식(25.6%·81명) ▲친목도모(14.9%·47명) ▲자연문화 체험(10.8%·34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주된 활동도 등산(77.8%)에만 한정되지 않고 자연체험(38.1%), 경관관상(33.4%), 산책(33.1%), 숲 치유(30.3%), 사찰관람(25.9%)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숲 치유’라고 응답한 점을 들어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무등산 자연 환경의 우수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무등산 누가 찾아=1년 가까이 탐방객 3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남성이 65%(204명)로 여성(35%·111명)보다 많았고 대부분의 탐방객은 광주(81.6%·239명)와 전남(11.3%·33명)에 집중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명산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연령대는 50대(23.8%·74명)와 40대(22.2%·69명)가 많았고 60대 이상(17%·53명), 20대(19.9%·62명), 30대(17%·53명)로 파악됐다. 조사대상 탐방객 직업은 자영업자(21.3%·67명), 회사원(21%·66명), 전업주부(13.1%·41명), 학생(11.1%·35명), 공무원(10.8%·34명) 순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300만원(29.3%·90명), 100만~200만원(17.6%·54명), 400만~500만원(16.9%·52명), 300만~400만원(16.6%·51명), 500만원 이상(16.6%·51명)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를 책임진 국립공원연구원 심규원 박사는 “계절과 평일, 주말을 구분해 조사에 참여한 탐방객 설문을 토대로 한 최초의 무등산 탐방객 만족도 조사”라면서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도심과 인접한 무등산의 특성상 탐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선 탐방로 관리와 교통편 확충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를 책임진 국립공원연구원 심규원 박사는 “계절과 평일, 주말을 구분해 조사에 참여한 탐방객 설문을 토대로 한 최초의 무등산 탐방객 만족도 조사”라면서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도심과 인접한 무등산의 특성상 탐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선 탐방로 관리와 교통편 확충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요리학원 위탁인정 취소

광주고용청 재량권 남용”

광주지법, 행정처분 부당 판결

요리학원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해당 과목 인정을 취소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강희)는 광주시 북구 A 요리학원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상대로 낸 ‘중식조리자격취득과정, 한식조리기능사과정 인정취소 및 해당 과정 1년 위탁인정제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 원장은 지난해 11월 27일 학원 내 1개 실습실에서 중식조리자격 훈련생 3명과 한식조리기능사 훈련생 7명을 함께 훈련받게 했다가 고용노동청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뒤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노동청 인정 처분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청 점검 당시 중식·한식 훈련 내용이 확연히 달라 두 과정을 합쳐 한 명의 강사가 진행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장소에서 두 교육 과정을 진행할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 인정받고도 다른 내용으로 훈련을 진행했지만 실습실 면적 등을 고려하면 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로 보기에 어렵다”면서 “시정명령이 아닌,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7일 오후 진도해역에서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침몰해 있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자체적인 수중촬영이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세월호 사고해역에서 수중촬영을 위한 잠수작업에 나서 세월호 부표에 접근하는 잠수작업용 선박 모습이다. 하지만 이들은 해수부와 해경이 잠수작업을 불허해 수중촬영을 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연합뉴스

4·16 가족협, 세월호 수중 촬영 시도...해수부 제지로 중단

“안전 고려해 불허한 것”

세월호 침몰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사고해역에서 수중 촬영에 나섰다 해수부 등의 제지로 촬영하지 못했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진도군 팽목항에서 기자회견 뒤 사고 해역 수중 촬영에 나섰다 해수부 등의 제지로 촬영 계획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가족협의회 측 인사의 휴대전화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안전을 고려해 수중촬영 입수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경서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팽목항으로 일단 돌아온 가족협의회와 촬영팀은 다시 사고 해역으로 출항해 사고해역에서 촬영을 위한 사전 작업인 ‘가이드라인’ 설치 등을 위해 잠수작업을 하려 했으나 기상악화로 하지 못했다.

해수부는 “4·16 가족협의회의 이번 촬영계획은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서 “정부도 앞으로 촬영 계획이 있는 만큼 촬영 주체가 달라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인양주체인 정부가 일관된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자질이 예상돼 가족협의회 측의 촬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무작정 선체를 인양한다면 그 후 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 분명한데도 정부는 가족들의 여러 차례 건의에 묵묵부답했다”고 직접 수중촬영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5 해질 19:50
 --:-- --:--
 --:-- --:--

“우산 챙기세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지역	날씨	기온(°C)
광주	흐리고 비	19/26
목포	흐리고 비	20/24
여수	흐리고 비	20/23
나주	흐리고 비	20/26
완도	흐리고 비	20/24
구례	흐리고 비	20/26
강진	흐리고 비	20/24
해남	흐리고 비	20/25
장성	흐리고 비	20/26
보성	흐리고 비	21/24
순천	흐리고 비	20/25
영광	흐리고 비	21/25
진도	흐리고 비	20/25
전주	흐리고 비	19/25
군산	흐리고 비	20/24
남원	흐리고 비	19/24
홍산도	흐리고 비	19/22

지역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5	1.0~2.0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	1.5~2.5
남해 앞바다	동~남동	1.0~2.0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동~남동	1.5~2.5	1.5~2.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동~남동	1.5~2.5	1.5~2.5

생활지수	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20
빨래	20

기간 날씨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51(수)
21/27	22/31	22/31	22/29	23/26	23/30	22/30	

위험한 새총

90m 거리서 쇠구슬 쏘 이웃가게 명중
순천경찰, 유리 파손 50대 영장 신청

50대 주점 주인이 새벽 시간, 90m 떨어진 이웃 가게에 쇠구슬을 쏘 유리를 깨트린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쇠구슬 무게와 지름, 깨진 유리 두께와 파편 크기 등을 토대로 쇠구슬 예상 발사 지점을 추려낸 뒤 해당 가게 압수수색으로 동일한 쇠구슬을 발견했다.

순천경찰은 7일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 커피숍 유리창 등을 깨트린 혐의(재물 손괴 등)로 강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3~6월 새벽 순천시 신대동 자신의 카페 2층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 맞은편 가게 4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새를 잡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새총을 샀다”는 강씨 진술 외에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중이다. 강씨는 인터넷에서 10만원짜리 새총을 구입, 지름 7mm 크기의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강씨 가게 등 쇠구슬 발사 예상 지점 3곳을 추려낸 뒤 수사하던 중 강씨가 자전거를 타고 유리창이 깨진 가게 주변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CCTV를 보여주지 않고 폐기하는 등 미심쩍은 정황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동종의 쇠구슬을 확보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새를 잡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새총을 샀다”는 강씨 진술 외에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중이다. 강씨는 인터넷에서 10만원짜리 새총을 구입, 지름 7mm 크기의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강씨 가게 등 쇠구슬 발사 예상 지점 3곳을 추려낸 뒤 수사하던 중 강씨가 자전거를 타고 유리창이 깨진 가게 주변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CCTV를 보여주지 않고 폐기하는 등 미심쩍은 정황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동종의 쇠구슬을 확보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순천=김은종기자 eikim@

친구끼리 재미삼아 도박했다가 경찰 출동 ‘날벼락’

○...시내의 한 당구장에서 한 낮에 벼락이 도박판을 벌인 40대 남성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나란히 경찰서행.

○...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7)씨 등 5명은 지난 6일 오후 4시 동구 학동 A당구장에서 판돈 70여 만원을 걸고 속칭 ‘홀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판당 2등은 1000원, 3등 2000원, 4등 3000원 5등 4000원씩 1등에 게 물어 주는 방식으로 60차례에 걸쳐 판을 벌이다 적발됐는데,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끼리 재미삼아 카드를 쳤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다”며 어리둥절.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신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 (최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찰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4등 - 족욕기(10명)
-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3등 - 아이패드(3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의 상세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